



오키나와인의 아이덴티티


너와 나와 오키나와 조

201621780 박정빈

201621791 김해미

201621800 김경민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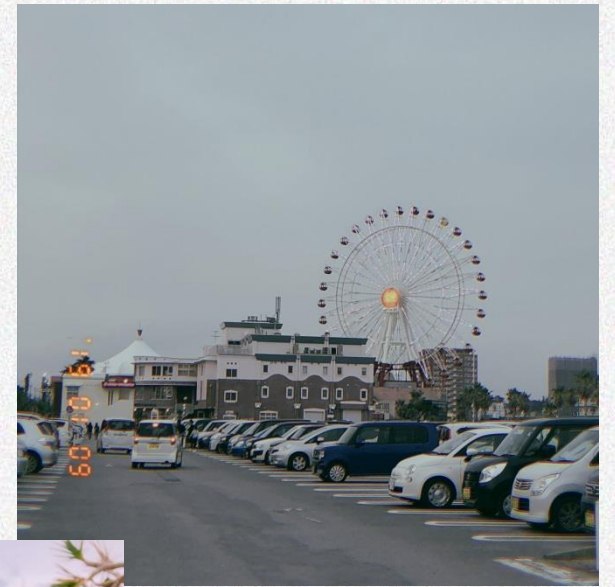
01	02	03	04	05
단기 현지 조사 일정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선행연구 검토	연구 내용	연구 결과의 요약 및 결론
	연구의 필요성	오키나와인 및 아이덴티티 정의	인터뷰 질문 및 답변 내용	느낀점 및 소감
		일본인과 비일본인의 경계		

일정

1일차. 오키나와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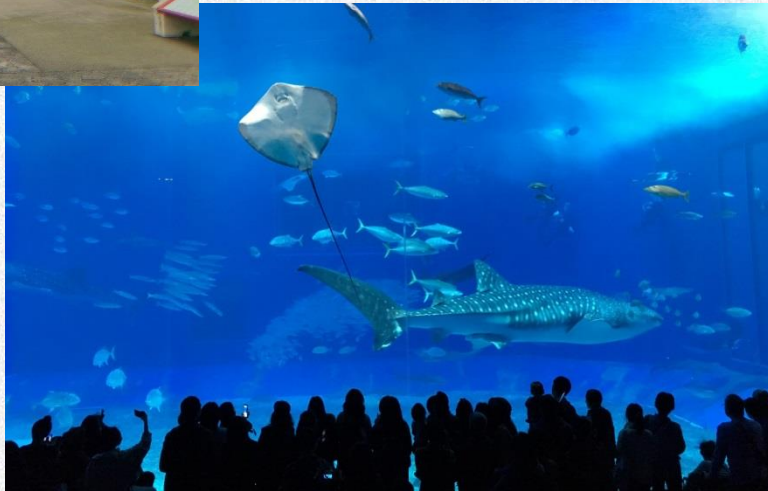
2일차. 류큐대학교 인터뷰



3일차. 북부버스타어



4일차. 오키나와 현립 예술대학교 인터뷰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오키나와에서 태어나고 자란 오키나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오키나와인의 아이덴티티 인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세계체제의 중심국가들 사이에서의 수많은 '귀속변경'에 의해 오키나와인들이 겪은 아이덴티티의 혼란과 고군분투의 양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복귀' 이후 현재에 이르는 자문화인식의 변화와 앞으로의 오키나와 아이덴티티 및 문화와 관련된 논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연구의 목적

오키나와는 현재 엄연한 일본의 한 행정구역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지리적으로는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열도로서 아열대기후에 속하며 문화적으로도 언어, 성씨, 음악, 무용, 장묘관습 등 여러 면에서 이색적인 지역이다.

오키나와의 역사는 굴절의 연속이었다. 우선, 역사적으로 15세기 초에 통일왕국인 '류큐왕국'을 수립하는 등, 일본 외부에서 독자적인 국가를 영위한 역사를 지니며 해양교역의 거점으로서 명, 조선, 일본, 동남아 각국과 무역하며 번성하였다.

자치왕국이자 명(明) 조공국(1429-1609) → 명·청 및 사쯔마-에도막부 양속체제(1609-1879) → 근대일본병합(1879-1945) 미군통치(1945-1972) → 일본재편입(1972-)이라는 경과만 보아도 오키나와가 겪었을 혼란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를 겪으면서 "과연 오키나와(인)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의식있는 오키나와인들의 지속적인 화두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연구의 목적

사실 오키나와 근현대사의 수많은 굴절과 아이덴티티 문제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한정된 시기나 특정 측면만을 중심으로 한 고찰, 혹은 개략적인 시대사적 요약만으로 전체상을 이해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가 겪어온 아이덴티티의 혼란과 고군분투를 재구성하는 것은, 오키나와에 대한 피상적 인식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작업이다.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연구의 배경

오키나와는 현재 엄연한 일본의 한 행정구역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지리적으로는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열도로서 아열대기후에 속하며 문화적으로도 언어, 성씨, 음악, 무용, 장묘관습 등 여러 면에서 이색적인 지역이다.

오키나와의 역사는 굴절의 연속이었다. 1879년 일본에 의해 병합되기 이전까지 15세기 초에 통일왕국인 '류큐왕국'을 수립하는 등, 일본 외부에서 독자적인 국가를 영위한 역사를 지니며 해양교역의 거점으로서 명, 조선, 일본, 동남아 각국과 무역하며 번성하였던 오키나와는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에서 유일하게 지상전이 벌어진 최대의 격전지였다.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연구의 배경

당시 오키나인들은 다년간의 일본의 황민화 교육을 통해 일본 천황 및 군국주의를 이상으로 삼는 '일본인'이 되어 있었으며, 주민의 1/4 이 전쟁에서 죽음으로 내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는 1951년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다시 일본도 류큐도 아닌 미국에 의해 신탁통치를 받게 되었다.

1972년 오키나와가 다시 일본으로 반환되었지만, 100여년 사이에 류큐인에서 일본인 그리고 미국인, 그리고 다시 일본인이 되어야 했던 오키나인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서 늘 혼란을 겪어야 했다.

오키나와인 및 아이덴티티의 정의

- 오키나와인

- ▶ 오키나와는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었기 때문에 거의 도래인의 영향을 받는 일이 없이 독자적으로 발전
- ▶ 15세기에 오키나와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루어 류큐(琉球)왕국을 세우고 명나라에 조공을 하며 중국문화를 수입
- ▶ 17세기에 시마즈(島津)번의 침입을 당함
- ▶ 1879년 일본에 귀속되어 정식으로 일본영토로 편입됨
- ▶ 정복당한 뒤에 동화를 강요당하면서도 차별을 받음
- ▶ 태평양전쟁 때에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격전장이 되어 군인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
- ▶ 패전 이후 27년간 미국의 전략 거점으로서 미국의 직접 통치를 받음

오키나와인 및 아이덴티티의 정의

- 오키나와인

- ▶ 이는 천황과 일본 본토를 지키기 위해 오키나와가 전쟁터로 이용되었고, 패전 이후에도 일본방위를 위해 오키나와가 희생된 것을 의미
- ▶ 1956년 미국이 총칼과 불도저로 주민을 몰아내고 토지를 강제로 접수해 싼 값에 사들인 것에 저항하는 섬 전체 투쟁을 전개
- ▶ 1972년에 일본영토로 복귀되지만 미일안보체제의 군사 거점으로 오키나와 토지의 20%를 미군이 점유
- ▶ 1980년대에는 '1평 반전지주(反戰地主)운동'을 전개
- ▶ 1평 반전지주운동은 일본정부에 대항하는 반전지주(反戰地主)가 소유하고 있는 미군기지 내의 땅을 지원자가 1평씩 사들임으로써 반전지주를 격려하고 미국기지를 철수시키고자 하는 운동
- ▶ 1995년 가을 미군이 오키나와 소녀를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미군기지에 대한 반대투쟁이 전개 됨

오키나와인 및 아이덴티티의 정의

- 일본인과 비일본인의 경계
 - ▶ 혈통, 문화, 국적이라는 3가지 요소로 구분해볼 때 일본인과 비일본인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음
 - ▶ 일본에 거주하는 집단은 매우 다양하며 여러 중간적인 형태가 존재
 - ▶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단일민족설이 널리 유포됨
 - ▶ 단일민족설은 지배적인 순수일본인을 상정함으로써 다른 이질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해옴
 - ▶ 오키나와인의 독자적인 문화를 말살하고 일본문화로의 동화를 강요
 - ▶ 단일민족설은 오늘날 일본 학계에서는 부정되고 있음

오키나와인 및 아이덴티티의 정의

- 아이덴티티의 정의

아이덴티티(Identity)란 '정체성'의 다른 말로 이의 사전적 의미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를 말한다.

아이덴티티라는 용어는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에릭슨(E. Erikson, 1902~1994)이 처음 도입한 것이다.

특히 그의 저서 『아이덴티티와 생애주기 (Identity and Life Cycle)』에서 청소년기 심리를 파악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사용한 것을 계기로 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심리학 뿐 만 아니라 사회·인문학 등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근대 국민국가와 관련해 많이 연구되고 있다.

선행 연구 검토

- 선행연구

“오키나와의 동화주의는 ‘오키나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 류큐 왕조의 무기력한 명망과 청의 일본에 대한 패배로 오키나와인들의 대다수는 네이션 스테이트 건설이라는 지향을 거의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일본의 류큐 병합은 이미 기정사실이며, 바람직스러운 일이었다. 그들에게 과제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일본의 근대적인 부분’과 열심히 동화하여, 타부현과 같은 차원의 일본 국민이 됨으로써 차별을 방지하고, 오키나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오키나와 지식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동화론자들이 목표로 한 바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박훈, 2007, 동화론과 오키나와 아이덴티티: 오타 초후의 동화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 통권 제73집

선행 연구 검토

- 선행연구

“오키나와는 국민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는 근대적 세계질서가 동아시아에까지 확대되기 시작했던 19세기 말까지 독자적인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다가 1897년 일본 제국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전근대적인 신민으로서의 류큐인과 근대적 시민으로서의 오키나와인 사이에는 정체성 면에서 상당한 틈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류큐인으로서의 문화정체성이나 정치적 충성심은 오키나와의 일본인으로서의 근대적 국민성 또는 민족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없는 조건에 있었다.”

최현, 2007, 근대국가와 시티즌십: '류큐인'에서 '일본인'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0권 1호

연구 내용

인터뷰 질문 및 답변



인터뷰 질문

- 인터뷰질문

1. 본인은 본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 오키나와인, 일본인, 일본인 이면서 오키나와인, 잘 모르겠다)
2. 본인은 스스로를 우지난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지난추란 일본 본토인 야마돈추와 자신들을 구별하여 부르는 단어이다.
3. 스포츠 시합에서 일본팀, 중국팀, 미국팀이 함께 시합할 경우 어느 팀을 응원하시겠습니까?
4. 스포츠 시합에서 오키나와팀과 일본팀이 함께 시합할 경우 어느 팀을 응원하시겠습니까?
5. 자신을 오키나와인 또는 일본인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0부터 10내에서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 내용

류큐대학교 인터뷰



인터뷰 질문 및 답변

- 인터뷰 답변 < 1일차 여학생1 인터뷰 >

1. 저는 제가 일본인이면서 오키나와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키나와에서 태어나고, 오키나와에서 자랐는데 오키나와에 이미 일본의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고, 개인적으로 오키나와가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져서 일본인이면서 오키나와인이라고 생각해요.
2. 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문화라든지 시스템적인 것 등이 상당 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3. 일본을 응원할 거예요. (웃음)
4. 음.. 두 팀 모두를 응원하겠지만, 굳이 한 팀을 고르라고 한다면 오키나와팀을 뽑을래요.(웃음) 오키나와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뭔가 고향팀을 더 응원할 거 같아요. (웃음) 그치만 두 팀 중 누가 이겨도 좋을거 같아요.
5. 저는 오키나와인 5, 일본인 5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질문 및 답변

- 인터뷰 답변 < 1일차 남학생1 인터뷰 >

1. 저는 일본인이면서 오키나와인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때부터 오키나와에서 거주해왔고 오키나와의 방언을 사용하고 있어서 일본인이지만 오키나와 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저는 우지난추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때부터 거주해왔으니까 제가 우지난추 3세이기도 하고 제가 일본에서 거주하다 오키나와에 온 친구들에게 오키나와만의 문화를 소개해줄 수도 있어서 우치난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저는 일본팀을 응원할거예요. 제가 일본인이니까요.
- 4.누가 이겨도 좋을 것 같지만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아무래도 오키나와가 제 출생지이자 거주지니까 오키나와팀이 이기면 제 고향 사람들이 승리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 같아서 오키나와팀을 응원하고 싶어요.
5. 일본인으로는 4, 오키나와인으로는 6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뷰 질문 및 답변

- 인터뷰 답변 < 1일차 남학생2 인터뷰 >

1. 저는 일본인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에 갈 때 여권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웃음)
2. 둘 중에 선택한다면 우지난추라고 해야할 것 같아요. 오키나와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일본인이지만 제 고향은 오키나와라고 생각해요.
3. 당연히 일본팀을 응원할거예요.
4. 둘 중 어느 팀이 이겨도 좋을 것 같은데요? (머쓱)
5. 일본인으로는 8, 오키나와인으로는 2 정도요!

인터뷰 질문 및 답변

- 인터뷰 답변 < 1일차 여학생2 인터뷰 >

1. 저는 일본인이라고 생각해요. 오키나와만의 문화라든지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잘 모르겠어서 저는 제가 일본인이라고 생각해요.

2. 아니요. 저는 제가 우지난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라고 하면..어..그냥 평소에 우지난추라고 생각해보지 않은 거 같아요. (미소)

3. 아마 일본팀을 응원하겠죠? (웃음)

4. 일본팀이랑 오키나와팀 둘 다 응원할래요 (웃음) 한 팀만 뽑는 건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5. 저는 일본인이랑 오키나와인이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일본인 10이라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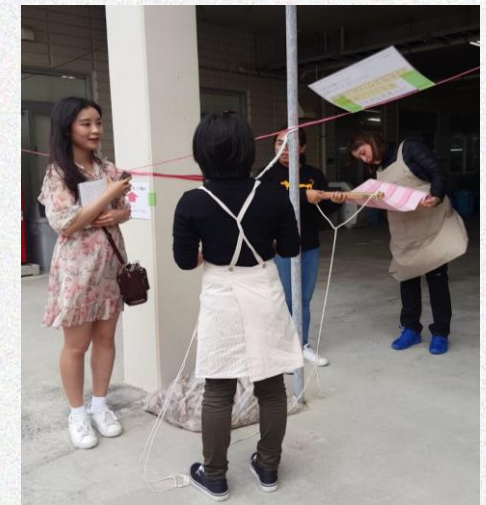
인터뷰 질문 및 답변

- 인터뷰 답변 < 1일차 남학생3 인터뷰 >

1. 저는 일본인이면서 오키나와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키나와에서 나고 자란 오키나와인이지만, 제가 살고 있는 오키나와는 일본에 속하기 때문에 일본인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 저는 본토 사람들과 오키나와인들을 구별 짓고 싶지 않아요. 저희는 다 같은 일본인인 걸요.
3. 저는 일본팀을 응원할거예요. 저는 일본인이니까요 (웃음)
4. 그 경우엔 오키나와팀을 응원할 것 같아요. 어떤 팀이 이기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제가 태어나고 자란 오키나와에서 출전한 팀을 조금이라도 더 응원하게 될 것 같아요.(웃음)
5. 저는 오키나와인과 일본인 둘 다 100% 라고 생각해요. (박장대소)

연구 내용

오кина와현립예술대학교 인터뷰



인터뷰 질문 및 답변

- 인터뷰 답변 <2일차 여학생1 인터뷰>

1. 둘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키나와인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오키나와에 살아서 본토보다는 오키나와만의 문화에 익숙하거든요.

2. 저는 우지난추요! 아까 말했듯이 저는 오키나와만의 문화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본토 사람들과는 다른 우지난추라고 할 수 있죠. (웃음)

3. 일본팀을 응원해야죠. (웃음)

4. 오키나와팀을 응원할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오키나와에서 쪽 살아왔으니까 제 고향인 오키나와팀을 응원해야죠 (웃음)

5. 저는 오키나와인 7, 일본인 3 정도라고 생각해요

인터뷰 질문 및 답변

- 인터뷰 답변 <2일차 여학생2 인터뷰>

1. 저는 일본인이면서 오키나와인이라고 생각해요. 오키나와가 일본의 섬들 중 하나에 속하고 있어서 '일본의 오키나와'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제가 우지난추라고 생각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 일본인과 오키나와인의 구분없이 지내와서 그런지,,,
3. 일본팀을 응원하고 싶어요.
4. 음.. 이 경우엔 좀 고민이 되는데.. 누가 이겨도 좋을 것 같아서 둘 다 응원하고 싶어요.
5. 저는 오키나와인도 일본인이라고 느끼고 있어서 일본인으로서 6, 오키나와인으로서는 4라고 생각해요.

인터뷰 질문 및 답변

- 인터뷰 답변 <2일차 남학생1 인터뷰>

1. 저는 오키나와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렸을 때 부터 그렇게 생각했던거 같아요.
2.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도쿄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거나 대화를 해보면 뭔가 오키나와 사람들을 쫓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 같아요.

-꼬리질문: 특별한 사건이 있었나요?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딱히 이렇다 할 특별한 사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런 기분이 드는거 같아요. 분위기가 좀 그렇다고 해야하나?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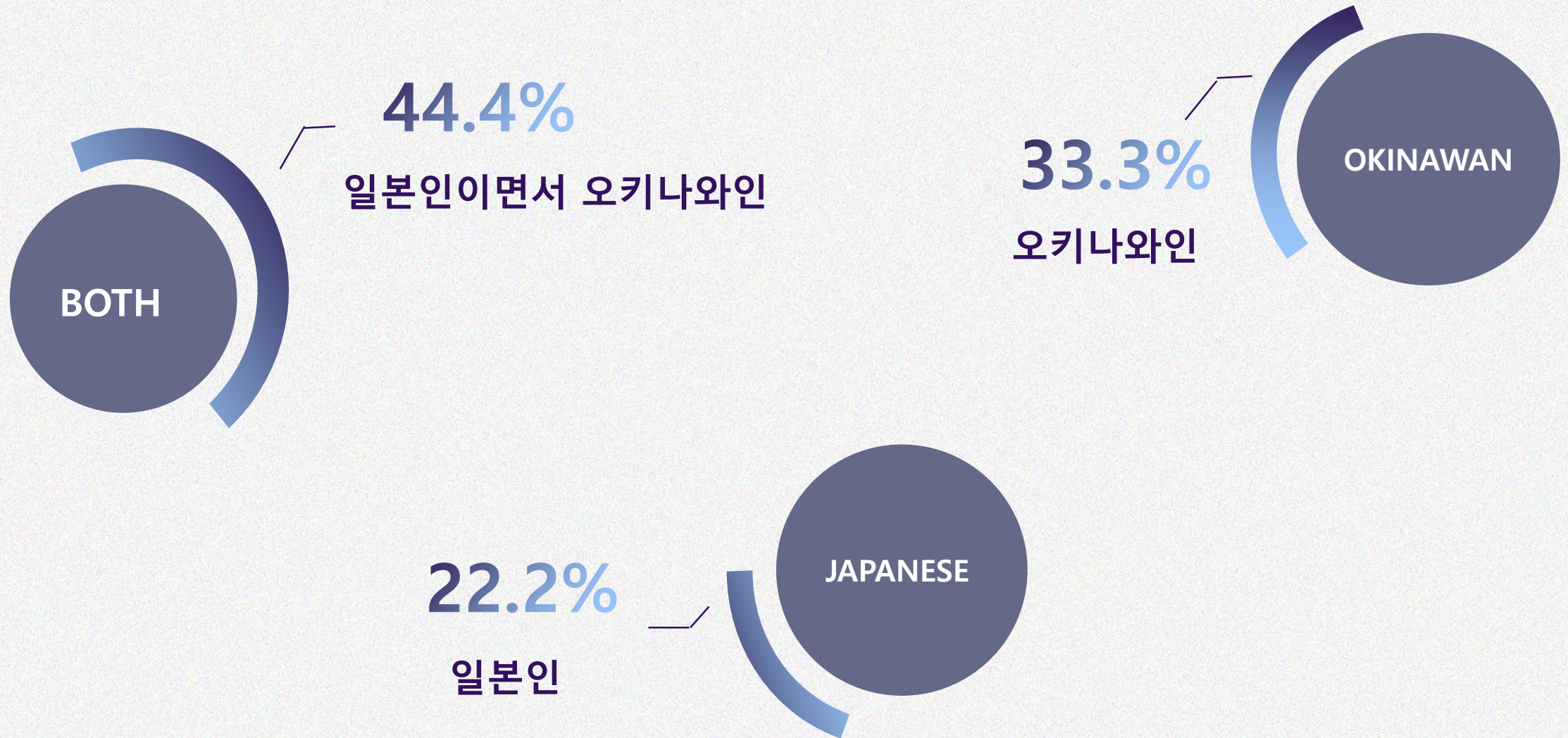
3. 일본인이니까 일본팀을 응원할 거 같아요.
4. 오키나와팀을 응원할 거 같아요. 그냥 제가 오키나와를 더 좋아하니까요.
5. 뭔가 딱 정도를 구분하기는 어려운 거 같고, 아마 오키나와인에 좀 더 가까울 거 같아요.

인터뷰 질문 및 답변

- 인터뷰 답변 <2일차 여학생3 인터뷰>

1. 일본인이요. 오키나와인도 일본인이잖아요 (웃음)
2.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오키나와인과 일본인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 같은 민족이니까요.
3. 당연히 일본팀을 응원해야죠.
4. 두 팀 중 누가 이겨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중립에서 두 팀 다 응원할래요. (웃음)
5. 음.. 오키나와인도 일본인이니까 일본인 10인 것 같아요.

연구 결과의 요약 및 결론



연구 결과의 요약 및 결론

오키나와는 본래 '류큐 왕국'이라는 독립국으로 존재했다. 류큐왕국은 본래 19세기 중반까지 450년간 한중일 3국과 무역하며 독자 영역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류큐 왕국은 군사력 강화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메이지유신 이후 곧장 정복돼 1872년 오키나와는 가고시마현 관할의 류큐번이 됐다. 이어 1879년 메이지 정부는 군대와 경찰을 파견해 류큐왕 쇼타이에게 슈리성을 비우도록 명하고 오키나와현을 설치해 일본 영토로 완전히 병합했다. 그렇게 류큐 왕국이 멸망했다. 이른바 '류큐 처분'(琉球處分)이다. 일본은 이후 식민지 정책을 시행해 언어와 두발, 풍속과 생활관습까지 철저히 일본화했다.

연구 결과의 요약 및 결론

이후 오키나와는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말기 미군이 점령한 뒤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미국령이 됐다가 1972년 '오키나와 반환'에 의해 다시 일본에 편입됐다. 즉 오키나와인들은 100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류큐 왕국-일본-미국-일본'이라는 정체성의 격변을 겪었다. 빠르게 정체성이 변화하고, 적응을 요구 받는 동안 오히려 '오키나와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강해졌다.

연구 결과의 요약 및 결론

실제 오키나와 해외현장연구 기간 동안 오키나와 현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 약 44%의 사람들이 자신을 '일본인이면서 오키나와인'으로, 약33%의 사람들이 자신을 오키나와인으로, 마지막으로 약 22%의 사람들이 자신을 일본인으로 인식한다고 답변했다.

즉 오키나와인들은 향토에 대한 애착심이 매우 높고, 일본 본토인들과 다르다는 타자의식이 강하며, 정체성 구조가 매우 복잡적이다. 오키나와가 일본 사회 내에서 여전히 이질적인 존재로 남아있는 이유다.

연구 결과의 요약 및 결론

오키나와인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자신을 일본의 일부로 위치지우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 정부에 의해 여러 차례 희생양으로 이용되었던 경험 때문에 오키나와인들은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체성은 일본의 정책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도 혹은 더 가까워 질 수도 있다. 현재 오키나와인의 독특한 정체성은 일본 안에서 오키나와의 전통적 문화를 유지하고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 결과의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오키나와인들의 정체성을 오키나와 현지 대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고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인터뷰이 대상을 류큐대학교, 오키나와 현립 예술 대학교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기에 오키나와 현지인이라는 표본의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인터뷰이 숫자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표본 및 인터뷰이 숫자를 추가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인터뷰 질문만으로는 오키나와인 정체성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느낀점 및 소감

▶ 박정빈

4박 5일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여정이 마무리 되었다. 이번 해외현장연구를 통해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우선 주제선정부터 자료조사, 현지기관과의 컨택, 현지인 인터뷰까지 스스로 하면서 막연했던 두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자료조사를 통해 그동안 몰랐던 오키나와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으며, 현지인들과의 인터뷰는 성취감과 더불어 그동안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까지 이뤄주었다. 현장조사, 특히 현지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 또래 오키나와 대학생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으며, 그들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 사실 인터뷰를 진행하고 난 후엔 오키나와에 오기 전 한국에서 각종 논문과 신문기사 등의 사전조사를 토대로 예상했던 답변들과는 다른, 보다 다양한 답변들이 많이 나와서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반성하기도 했었다. 이번 해외현장조사가 아니었다면 깨닫지 못했을 것들이기에 이번 현장조사는 나에게 있어 보다 시야를 넓혀주고, 사고를 확장시켜주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더 많은 나라를 방문하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이렇듯 이번 오키나와 해외현장연구는 나에게 있어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해외 방문을 통해 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해보는 경험을 쌓아보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다시금 내게 일깨운 소중한 기회였다.

느낀점 및 소감

▶ 김해미

오키나와에서 4박 5일간의 단기 현지조사를 마치며 들었던 생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직접 겪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오키나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사전조사를 하면서 오키나와만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오키나와는 과거 아픈 역사를 겪었고 현재도 기지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평화롭지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실제로 본 오키나와는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밝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오키나와의 온난한 기후와 자연, 도시들이 잘 어우러져 평화로움을 자아내고 있었다. 특히 오키나와에서 진행한 현지인과의 인터뷰는 나의 두려움과 걱정을 자신감과 성취감으로 바꿔주었다. 일본어로 소통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인터뷰에 응해준 오키나와 대학생들과 나와 함께 연구를 진행한 너와 나와 오키나와 조 친구들 덕분이다. 혼자서 했다면 해내기 어려운 일들이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조사하며 도전하니까 결국엔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을 얻고 돌아올 수 있었다. 보다 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게 오키나와에 가기전부터 가서까지 모든 과정에서 연구를 도와주신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아주대학교 국제학부에도 감사드린다.

느낀점 및 소감

▶ 김경민

첫 해외여행을 단기 현지조사를 통해 다녀오게 된 만큼 4박 5일 동안 오키나와에서 보낸 시간은 내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오키나와에 머무르며 내가 이때까지 우물 안 개구리로만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국에서 인터넷 기사와 논문들로 접한 오키나와인들은 미군기지 문제로 여전히 본토와 갈등을 겪고 있고 일본에 재편입된지 비교적 얼마 되지 않아 정체성에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 가서 보고 느낀 오키나와는 다른 어느 곳보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길을 알려주는 행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매우 친절했고 여유로워 보였다. 특히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친절하게 웃으며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준 대학생들 덕분에 현지조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번 단기 현지조사 프로그램은 팀 별로 주제를 정하고 인터뷰 질문을 작성하고, 인터뷰를 실시할 기관과 직접 컨택했다. 그 과정에서 주제도 여러 번 바뀌었고 컨택도 순조롭게 잘 되지 않는 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해내야 했다면 금방 포기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끈기 있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준 팀원들 덕분에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었고, 지금의 값진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일본 단기 현지조사는 오키나와에 대한 넓은 시각과 견해를 가질 수 있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팀원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감사합니다

